

##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역량 영향요인

정영순, 임선영\*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ffecting Factors of Core Nursing Competence by Senior Nursing Students

Young-soon Jung, Sun-young L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C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4학년 학생 178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75, p<.001$ ), 전공만족도( $\beta=0.44, p<.001$ ), 비판적사고( $\beta=0.29, p=.003$ ), 전문직관( $\beta=0.22, p=.009$ ), 셀프리더십( $\beta=0.17, p<.001$ )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핵심간호역량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3.4%이었다. 따라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core nursing competence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178 students in the 4th year of nursing at one college in the Ulsan were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5.0 program. Study finding revealed that major satisfaction( $\beta=0.44, p<.001$ ), critical thinking( $\beta=0.29, p=.003$ ), nursing professionalism( $\beta=0.22, p=.009$ ), and self-leadership( $\beta=0.17, p<.001$ ) about core nursing competence wer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 $F=7.75, p<.001$ ). This variables accounted for 23.4% of the variance in core nursing compet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rogram to improve core nursing competency in seni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Professionalism, Clinical competen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는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서비스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 보건정책의 시행은 보건의료공급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1]. 간호인력은 보건의료 공급체계에서 수적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사는 다양한 간호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기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 이에 따라 간호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간호교육기관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운영 체계를 갖추어 졸업시 일정 수준 이상의 핵심이 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장하는 것을 간호교

\*Corresponding Author : Sun-young Lim(ciprova@ch.ac.kr)

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3].

핵심역량이란 특정한 직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능력을 규명하는 의사결정도구로 정의되며[4],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지적 전략을 포함하는 역량을 의미한다[5]. 간호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구성항목으로 볼 수 있는 비판적사고, 의사소통능력, 전문직관, 리더십, 임상수행능력 등은 각각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6]. 또한 간호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대학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핵심간호역량을 조사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7]. 이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간호사들이 대학의 교육만으로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7, 8]. 실무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간호실무현장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8]. 이러한 결과로 각 의료기관마다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다[9]. 이 교육과정 안에는 이미 간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내용이 대부분인 간호지식과 기본간호술, 비판적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전문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7, 9]. 이러한 현상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실습은 대상자를 직접 간호하기 보다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간호를 관찰하는 것과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3].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을 통해 성취해야 할 기본 역량으로 리더십, 비판적사고능력, 전문직관 등을 포함한 7개 역량을 발표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2, 6]. 그러나 간호교육기관인 대학은 교육 성과를 확인하여 간호인증평가 기준에 맞추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상현장에서 적응도를 높이고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3].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서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독특한 행동으로 정의된다[10]. 자기주도적이며 책임있는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간호사의 기본자질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대학생의 전공 및 학과 만족도를 높이고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가질수 있게 하여 학업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변수로 확인되며[11], 간호교육과정에서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은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수행을 위한 역량을 높이는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비판적사고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판단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간호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12]. 또한 간호교육의 필수적인 성과지표일뿐 아니라 임상간호사의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13]. 국내의 연구에서 비판적사고는 이론과 실무의 격차를 줄여 임상현장 적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환자 간호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14].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관에 직업관이 결합된 총체적 관련 신념 및 인상의 총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호에 대한 인식과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15]. 간호전문직관은 전반적인 간호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바람직한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는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개인적 만족은 물론 대상자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2, 16].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기 시작하여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업무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17]. 이렇게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은 실무에서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하는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간호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고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간호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나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대학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핵심간호역량을 조사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3, 7, 11], 졸업시점 간호학생의 핵심간호역량을 파악하고 관련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예비간호사로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간호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대부

본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적용하거나 하나하나의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로 평가하여 그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대부분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간호역량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간호교육 현장과 간호실무 현장 간의 이론과 실무 격차를 줄이고 간호대학 졸업생이 졸업 후 바로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에서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핵심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및 핵심간호역량을 확인하고,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핵심간호역량 정도를 확인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핵심간호역량의 차이와 관계를 확인한다.
- 셋째, 대상자의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울산 소재 C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정하였다.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의미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간호학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임상실습 1000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당해 학기까지 전공교과목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료, 울산광역시 소재 C간호대학의 경우 4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해당된다. 또한 이 중 간호조무사 또는 보건의료인의 경험이 있는 편입학생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에 적합한 표본수 산정은 G\*Power 3.1.9.7를 이용하여 Cohen의 법칙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양측)은 .05, 표준 검정력( $1-\beta$ ) .95%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74명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19]이 개발한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를 Houghton 등[20]이 수정한 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ASL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9점부터 최대 4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Houghton과 Neck[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74이었고 Houghton 등[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2.3.2 비판적사고

비판적사고는 Yoon[21]이 개발한 비판적사고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27점에서 최대 1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89이었다.

###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Kwon과 Ahn[22]이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Kim[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18점에서 최대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8이었다.

### 2.3.4 핵심간호역량

핵심간호역량은 Joo와 Sohng[3]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총 30문항으로 간호전문직관, 비판적사고를 통한 통합적 간호, 의사소통능력, 간호리더십, 스트레스관리, 생명존중, 간호연구, 핵심기본간호술로 구성되어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30점에서 최대 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간호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준수하여,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수거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과 연구 참여 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주었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이었다.

###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핵심간호역량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핵심간호역량 관련성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핵심간호역량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된 변수 외에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선별하여 더미처리 후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38명(77.5%), 남자가 40명(22.5%)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23.08 \pm 2.50$ 세로 만 22세 이하가 119명(66.9%)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93명(52.2%)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도 만족이 118명(65.7%)로 나타났다. 학과선택동기는 적성 및 취미가 맞아서 선택한 경우가 94명(52.8%)로 가장 많았고, 졸업후 취업률 48명(27.0%), 부모님 및 선생님 권유 17명(9.6%)순이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학업성적 정도는 중이 140명(78.7%)으로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8)

Variable	Devison	n	%	M±SD
Gender	Women	138	77.5	
	Men	40	22.5	
Age	≤22	119	66.9	23.08±2.50
	23-25	34	19.1	
	26≤	25	14.0	
Human relationship	Unsatisfiated	6	3.4	
	Moderate	49	27.5	
	Satisfaction	93	52.2	
	Very good	30	16.9	
Major satisfaction	Unsatisfiated	3	1.7	
	Moderate	37	20.8	
	Satisfaction	118	65.7	
	Very good	21	11.8	
Department selection motivation	High school grades	7	3.9	
	Aptitude and hobbies	94	52.8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48	27.0	
	Parent and teacher invitation	17	9.6	
	Etc	12	6.7	
Academic record	Good	9	5.1	
	Everage	140	78.7	
	Bad	29	16.3	

###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핵심간호역량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최저 9점에서 최고45점에서 평균 31.65±4.76점이었고 평점 3.51±0.52점이었다. 비판적사고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평균 98.06±11.15점이었고 평점 3.63±0.41점이었다. 전문직관은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으로 평균 68.10±8.76점이었고 평점 3.78±0.48점이었다. 핵심간호역량은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으로 평균 124.30±12.40점이었고 평점 4.14±0.41점으로 Table 2와 같다.

**Table 2.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re nursing competence (N=178)**

Variable	Item M±SD	Total M±SD	Total range
Self Leadership	3.51±0.52	31.65±4.76	20-40
Critical thinking	3.63±0.41	98.06±11.15	75-129
Nursing Professionalism	3.78±0.48	68.10±8.76	50-89
Core Nursing Competency	4.14±0.41	124.30±12.40	98-146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간호역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간호역량은 성별 (t=11.91, p<.001), 대인관계(F=6.02, p<.001), 전공만족도(F=14.05, p<.001), 학과 선택동기(F=5.88,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e nursing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8)**

Variable	Categories	Core nursing competence	
		M±SD	t or F(p) Scheffe'
Gender	Women	4.15±0.44	11.91 (.001)
	Men	4.10±0.27	
Age	≤22	4.16±0.42	.668 (.514)
	23-25	4.10±0.30	
	26≤	4.07±0.50	
Human relationship	Unsatisfatied <sup>a</sup>	4.00±0.28	6.02 (.001) b,c,d
	Moderate <sup>b</sup>	4.07±0.53	
	Satisfaction <sup>c</sup>	4.08±0.28	
	Very good <sup>d</sup>	4.36±0.45	
Major satisfaction	Unsatisfatied <sup>a</sup>	3.60±0.01	14.05 (.001) b,c,d
	Moderate <sup>b</sup>	3.85±0.33	
	Satisfaction <sup>c</sup>	4.19±0.37	
	Very good <sup>d</sup>	4.42±0.44	

Department selection motivation	High school <sup>a</sup> grades	3.70±0.37	5.88 (.001) a,c
	Aptitude and <sup>b</sup> hobbies	4.17±0.35	
	Employment rate <sup>c</sup> after graduation	4.22±0.43	
	Parent and teacher invitation	4.20±0.47	
Academic record	Good	4.32±0.32	3.66 (.281)
	Everage	4.16±0.43	
	Bad	3.97±0.27	

###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및 핵심간호역량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핵심간호역량은 셀프리더십(r=.274, p<.001), 비판적사고(r=.127, p=.031), 전문직관(r=.260,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비판적사고(r=.594, p<.001), 전문직관(r=.301, p<.001), 핵심간호역량(r=.27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로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re nursing competence (N=178)**

Variable	(1) r(p)	(2) r(p)	(3) r(p)	(4) r(p)
(1) Self leadership	1.00			
(2) Critical thinking	.594 (.001)	1.00		
(3) Nursing professionalism	.301 (.001)	.542 (.001)	1.00	
(4) Core nursing competency	.274 (.001)	.127 (.031)	.260 (.001)	1.00

### 3.5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학과 선택동기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핵심간호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로 확인된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을 독립변수로 하여 동시입력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의 핵심간호역량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7.754, p<.001), 독립 변인 간의 독립성은 그들의 상관관계 계수가 .80이상인 경우가 나타나지 않아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 한계(tolerance)

는 0.45~0.67로 0.1이상이었고 분산 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63~2.13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Durbin-Watson값이 1.972로 2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auto-correlation)이 없었다.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만족도( $\beta=0.44$ ,  $p<.001$ ), 비판적사고( $\beta=0.29$ ,  $p=.003$ ), 전문직관( $\beta=0.22$ ,  $p=.009$ ), 셀프리더십( $\beta=0.17$ ,  $p<.001$ )이었으며, 핵심간호역량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3.4%로 Table 5와 같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ore nursing competency (N=178)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1.68	.28		3.04	<.001
Self leadership	0.82	0.23	0.17	1.95	<.001
Critical thinking	0.33	0.11	0.29	2.99	.003
Nursing professionalism	0.31	0.12	0.22	2.63	.009

$R^2=.268$ , Adj.  $R^2=.234$ ,  $F=7.754$ ,  $p<.001$ , Durbin-Watson=1.972

#### 4. 논의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및 핵심간호역량 정도를 알아보고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4.1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활용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직접적 비교는 어려웠으나,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중재 전후를 비교한 Park & Lee[24]의 연구에의 사전 점수 3.0점 보다는 다소 높은 점수이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 4학년이라 하더라도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에 차이가 있어, 핵심기본간호술이라는 중재 직후 점수와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핵심이 되는 간호역량과 관련 변수들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간호역량은 성별 중에서는 여성이, 대인관계는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선택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학과 및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좋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나 행복감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25].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간호학과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2015)의 연구 결과 평균 3.44점보다는 높았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2]의 3.56점과는 동일한 수준이었고, 1학기 이상 임상 실습 경험을 해 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과 Moon[26]의 3.72점보다는 낮았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개념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잠재력이나 학습경험 및 교육을 통해 고무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경험을 한 개인의 경우는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2, 26]의 결과를 지지한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는 개인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개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성과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12]. 이에 따라 간호 대학생의 개인의 특성과 학년을 고려한 셀프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된다면 다양한 간호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간호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비판적사고는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7]의 연구에서 3.51점보다는 높은 점수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와 Ha[28]의 3.61점과는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는 비판적사고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중한 성향이 증가되는 경우와 일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사고는 성별, 나이,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학업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비판적사고가 높게 평가되어 관련 선행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로 간호학

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비판적사고의 함양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78점으로 Ham, Kim, Cho와 Lim[29]의 3.43보다는 높았고, 동일한 도구로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의 3.60점과는 동일한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과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18, 29]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전문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졸업 후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폭 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될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간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전문직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과 핵심간호역량과의 상관관계는 비판적사고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고, 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도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핵심간호역량은 셀프리더십과 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판적사고와 셀프리더십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핵심간호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합리적 판단과 리더십 함양이 이루어져야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인 대인관계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함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핵심간호역량의 도구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 가져야 할 8가지 역량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 결과의 비교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종합적인 핵심간호역량의 함양을 위해서 관련되는 변수를 확인한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이라 하겠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 도구의 적용이 아니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간호역량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

고 그 결과를 확인한 연구에서[3] 반복 연구를 통해 졸업 학년 간호 대학생에게 핵심간호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제언한바, 본 연구 결과가 활용 되기를 기대해본다. 간호현장이 다양해 질수록 각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직을 하는 간호사 수의 증가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는 아니다. 간호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간호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지속적인 관심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간호교육의 질을 재고하는 자 하는 노력과 함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및 핵심간호역량을 알아 보고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 비판적사고, 전문직관, 핵심간호역량의 정도는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핵심간호역량은 셀프리더십, 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결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다양한 학교와 학제, 학년에 따른 비교를 통한 탐색 및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고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수뿐만 아니라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깊이 있고 통합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Y. O. Seo. (2017). *Research on Policy Proposals for Nurturing and Producing Excellent Nurses*. Seoul :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 [2]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DOI : 10.5977/jkasne.2015.21.2.227
- [3] G. E. Joo & K. Y. Sohng. (2014). Development of Nursing Competence Scale for Graduati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3), 590-604.  
DOI : 10.5932/JKPHN.2014.28.3.590
- [4] P. McLagan. (1996). Great Ideas Revisited. *Training & Development*, 50(1), 60-65.
- [5] Y. H. Sung & J. H. Jeong. (2006). Defining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and Comparing Different Units based on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1), 76-93.
- [6] H. Y. Lee, K. S. Oh, Y. H. Ahn, S. J. Lee & I. J. Kim. (2010). Exploratory Study on Scales of Nursing Education Outcom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53-60.
- [7] S. K. Lee, S. N. Park & S. H. Jeong. (2012).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8(4), 460-473.  
DOI : 10.11111/jkana.2012.18.4.460
- [8] E. O. Ji. (2009). *A study on Field Adaptation of New Nurs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9] S. O. Choi & J. Kim. (2013). Relationships Among Job Stress, Nursing Performance, and Retention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7(1), 142-152.  
DOI : 10.5932/JKPHN.2013.27.1.142
- [10] C. C. Manz & H. P. Sims Jr. (1987). Leading Workers to Lead Themselves: The External Leadership of Self-managing Work Te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06-129.
- [11] S. M. Lim & Y. R. Yeom. (2020).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to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1), 107-116.  
DOI : 10.22156/CS4SMB.2020.10.11.107
- [12] J. H. Ha & H. J. Lee. (2020).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1(3), 337-347.  
DOI : 10.12799/jkachn.2020.31.3.337
- [13] K. A. Shin & B. H. Cho.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46-56.  
DOI : 10.7739/jkafn.2012.19.1.046
- [14] L. J. Fero, C. M. Witsberger, S. W. Wesmiller, T. G. Zullo & L. Hoffman. (2009).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New Graduate and Experienc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1), 139-148.
- [15]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16] D. Adams & B. K. Miller. (2001). Professionalism in Nursing Behavior of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7(4), 203-210.
- [17] Y. S. Ham & H. S. Kim. (2012).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3), 363-373.  
DOI : 10.7739/jkafn.2012.19.3.363
- [18] S. J. Park, H. S. Choi & J. Y. Kim. (2019). Effects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Patient Saf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9), 341-350.  
DOI : 10.5762/KAIS.2019.20.9.341
- [19]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DOI : 10.1108/02683940210450484
- [20] J. D. Houghton, D. Dawley & T. C. DiLiello. (2012). The 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ASLQ): a More Concise Measure of Self-lead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7(2), 216-232.

- [21]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22]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5(6), 1091-1100.
- [23] M. H. Kim. (2008).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Nursing as Professionalism*. Master's thesis.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24] J. H. Park. & D. Y. Lee. (2020) The Effect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Progra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on Performance Confidence, Clinical Performance Capacity and Core Nurs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11(3). 281-289.  
DOI : 10.15207/JKCS.2020.11.3.281
- [25] M. S. Jung & H. J. Kwon. (2015).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56-265.  
DOI : 10.5977/jkasne.2015.21.2.256
- [26] N. Y. Yang & S. Y. Moon.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 218-225.
- [27] S. J. Kim. (2018). Effects o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Thinking Self-conception of Nurse on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1), 1-10.  
DOI : 10.7739/jkafn.2018.25.1.1
- [28] M. S. Lee & Y. O. Ha. (201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2), 8738-8744.  
DOI : 10.5762/KAIS.2015.16.12.8738
- [29]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38-546.  
DOI : 10.5977/JKASNE.2011.17.3.536

정 영 순(Young-soon Jong)

[정회원]



- 2000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의대 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j412368@ch.ac.kr

임 선 영(Sun-young Lim)

[정회원]



- 2012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7년 8월 : 동의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춘해보건의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지역사회간호, 간호교육
- E-Mail : ciprovay@ch.ac.kr